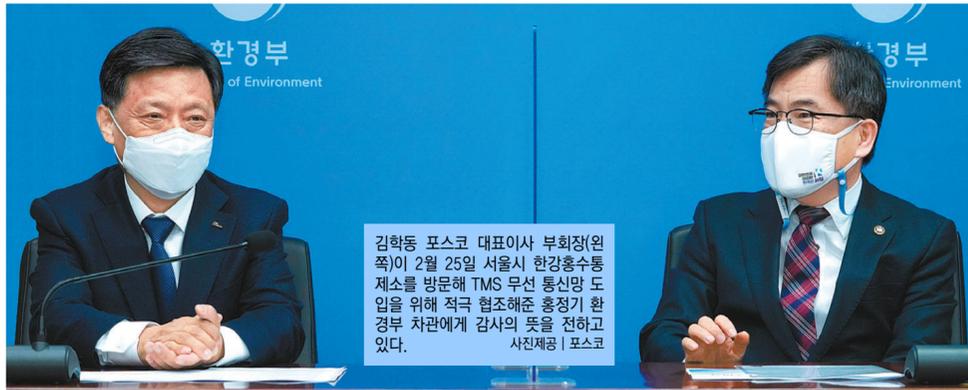


환경부 손잡은 포스코... ‘세 토끼’ 잡았다

- 1 유선통신 대비 투자 부담 완화
 - 2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아져
 - 3 보다 수월한 유지관리도 강점
- “민관 협력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은(왼쪽)이 2월 25일 서울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TMS 무선 통신망 도입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홍정기 환경부 차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 포스코

포스코가 환경부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에 무선 LTE 통신 방식을 도입했다.

굴뚝원격감시체계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새롭게 도입된 무선 LTE 통신 방식은 공장의 굴뚝에 설치되어 있는 TMS의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 받아 환경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장거리 케이블 공사가 필요한 기존 유선 통신 방식에 비해 투자비가 적게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으며 유지관리가 수월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 국내법상 TMS 데이터는 유선으로만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로 인해 TMS 설치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무선 통신방식 도입에

굴뚝원격감시체계란?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장 큰 사업장인 포스코와 협력하여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포항·광양제철소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무선 통신방식 도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고도 2m 이상, 길이 43km에 달하는 유선 케이블 설치 공사를 무선으로 해결하게 되어 안전한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1월 21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완료해 국내 모든 사업장이 무선 통신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측정분석기준이다.

최근 대기사업장 관리규제 강화와 함께 신속·정확한 대기배출가스 측정분석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 사례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은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환경개선 투자와 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환경부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민관 협력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 투자유치 계약 체결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

물류용 수소드론 개발 나선다 DMI, 270억원 규모 투자 유치

독보적 기술력 앞세워 산업용 시장 선점 가속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이하 DMI)이 IDG캐피탈, 한국투자파트너스, DS자산운용으로부터 27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물류용 수소드론 개발 투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용 드론 시장은 물류배송, 드론택시, 안전 감시 등 타 산업과 연계 가능성이 높아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용 드론 업체인 DMI는 이번 투자 유치가 혁신적인 수소모빌리티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DMI는 이번 투자 자금을 ▲제품 라인업 강화 ▲우수 인력 유치 ▲해외 영업활동 강화 ▲수행성 연료전지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행성 연료전지는 물류, 수송 용도의 대형 모빌리티에 탑재되는 핵심 요소다. DMI는 물류드론 및 10~50kg의 페이로드를 지닌 카고드론 사업화를 위해 국책과제를 진행 중이다. 물류용 드론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

DMI 이두순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는 모빌리티용 초경량 연료전지 시장의 미래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신제품 라인업 확대,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모빌리티 사업을 다각화하고, 산업용 드론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드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DMI는 지난해 수소드론 군납, 가스배관 점검 솔루션 개발, 내구성 강화된 신제품(DS30W) 출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DMI의 수소드론은 2시간 이상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감시, 정찰, 모니터링과 같은 임무에 적합하다.

이 같은 장점을 앞세워 DMI는 산업용 드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용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국방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신속시범확대사업(방위사업청) ▲우수상용품 시범용사업(국방부) ▲전투실용 운용사업(육군 교육사) 등의 사업에 참여해 군용 솔루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탄소 문제 해결 원년...SK이노 새 60년 준비”

이성준 환경과학기술원장 강소 창립 60주년 맞아 사내 인터뷰 “축적된 최고 수준 기술로 혁신”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사진)은 페플라틱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미래 유망 기술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SK이노베이션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이 사내 인터뷰를 통해 올해를 ‘혁신 기술로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SK이노베이션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2의 창업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을 더해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겠다”며 “축적된 최고 수준 기술로 탄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과학기술원은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해 ▲페플라틱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탄소 포집 및 저장(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경과학기술원은 지난해 페플라틱에서 뽑아낸 열분해유를 국내 최초로 실제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하며 페플라틱 재활용 기술에 큰 진전을 이뤘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열분해유 파일럿 공장을 준공하고, 2025년 대규모 열분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제반 기술을 점검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과학기술원은 버려지는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해 환경 문제와 배터리

원자재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BMR) 기술 역시 수년간 연구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

대규모 공정을 운영하기 직전 단계인 파일럿 공장을 지난해 지어 상업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페플라틱 재활용 기술과

BMR 기술은 60년간 축적해온 역량을 새로운 분야에 접목시켜 확보한 혁신 기술”이라며 “오랜 기간 석유화학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최고 수준의 기술을 축적해온 SK이노베이션이 탄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산화탄소를 연간 40만 톤 바다속에 저장할 수 있는 동해가스저장 포집 및 저장 국책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e-fuel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계획 중이다.

새로운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폐윤활유 재활용 ▲바이오 연료유, 바이오 나프타,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수소 에너지 기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할 R&D 역량 강화를 위해 ‘SK그린테크노캡처스(가칭)’와 병행해 글로벌 R&D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R&D를 추진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30일(수) 음력: 2월 2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남자라면 여성에게 부탁해보라. 상가에서의 음식을 조심하라.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먹고 노는 일에 치중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설치면 실수한다.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 손해는 보겠지만 때때는 이루어진다. 하는 일마다 마가 끼고 되는 일이 없다. 쥐피와 상의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문서 문제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현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내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졌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오늘은 도화의 날이다.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갑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경쟁력보다는 은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공연한 심통에 짜증을 낼 수 있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이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계획한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매사 꼼꼼히 살펴라.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인덕은 있는 날이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었으니 노력하라.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이성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심하라.	웅담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재능이 빛을 보는 날이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될 것이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일확천금을 바라는 기운이다.	

오늘의 날씨			30일(수)		
서울 20/60	인천 20/60	춘천 30/60	7 16	7 14	3 16
강릉 20/60	대전 20/60	전주 20/60	10 17	5 18	6 19
광주 20/60	대구 20/60	부산 20/60	7 20	7 20	10 16
창원 20/60	제주 30/60	지역	7 17	12 21	강수 확률 (오전/우)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9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1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